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오전 11시

교회소식

찬 양*

기도인도

봉 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 도*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샤마임찬양대

김원재목사

다같이

설교자

주일예배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나의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 633)

사도행전 6:8-15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격동의 시간 속에서”

나 말은 본분은 (찬 595)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다음 주일(9/6)은 성찬주일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 빵과 포도음료를 준비하셔서 영상으로 성찬식을 진행할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3. 주일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팀이 10시 30분에 모입니다. (문의- 정주애 전도사)
4. 오늘(8/30)부터 - 수요일(9/2)까지 자녀들을 위한 (비대면)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문의-차유미 전도사)
5. 9/3(목) 저녁 6시30분 부터 9시 30분 까지 새학기를 위한 Youth Group One day Retreat이 있습니다.
6. 9/9(수)부터 6주간 수요일 저녁 8시에 직분자 훈련이 있습니다. 10월에 임직식을 할 장로,집사,권사 피택자들과 현재 직분자들은 모두 참석하기 바랍니다.
7.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주정부의 명령에 따라 당분간 주일예배를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와 현장예배로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행정지침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전 교인을 2개 조로 나누어서 격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원 제한이 있어서 연락받으신 분들만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8.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수단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귀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종교심리학 분야에 논문을 쓰는 연구자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그 조사를 바탕으로 쓴 논문의 내용은 “공포와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실제하지 않는 것을 보고 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종교적 착시 효과라고 합니다. 종교현상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들이 말도 안되는 이단에 휩쓸리고 추종하는 것도 종교적 착시 효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라디오방송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등산을 하다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찾 수가 없고 급한 나머지 등산로 옆에 큰일(?)을 보고 돌로 덮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 사람들이 돌을 쌓았다고 합니다. 급기야 어느날엔가 가다보니 그것은 돌탑이 되었고, 사람들이 합장을 하며 소원을 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한 가운데는 자신의 배설물이 있는데 말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넘쳐나는 요즘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늘 근심과 걱정은 있어왔지만, 코로나로 인해 더 넘쳐나고 있습니다. 팍팍한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믿고 있었던 우리 시대의 문명과 과학 기술이 별거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이러스 하나에 꼼짝하지 못하는 전세계를 경험하며, 중세의 유럽이 페스트로 인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고 유럽 전체가 마비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종교적 착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근심과 두려움 속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판을 합니다. 이런 때에도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909,582